

#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고명숙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s

Koh, Myung Su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on family cohes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299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City and Gyeonggi Province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regression with the SPSS 14.0 WIN program. **Results:**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significantly influenced family cohesion. Second,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family cohesion significantly affected adolescent self-esteem. Third, when the influence size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family cohesion as influencing adolescent self-esteem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cohesion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Conclusion:** The findings may provide useful insights to researchers who want to develop social support program for adolescents.

**Key words:** Child rearing, Family relations, Self-esteem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생의 주기 중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의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 시기에 발달되어야 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아정체감의 확립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을 이루는 일은 이들로 하여금 혼란, 갈등, 정서적 고통 등 심한 긴장감을 경험하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기도 한다(Steinberg, 1990). 동시에 학교 성적과 입시라는 중압감으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보일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청소년의 폭력, 음주, 흡연, 자살 등으로 이러한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의 낮은 자존감(Kim, 2003)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 문제들의 보호요인으로 부모자녀 관계(Bang & Cho, 2003), 사회적 지지(Jung, 2006) 등이 제시되고 있다.

자존감은 우리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므로 인간행동과 적응양상에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8).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불안정을 극복하는 내적 힘이 있으며 자신을 과

주요어 : 양육태도, 가족관계, 자존감

\*본 논문은 2010년도 삼육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ahmyook University research Fund.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h, Myung Suk

Departmen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 26-21 Gongneung 2-dong, Nowon-gu, Seoul 139-742, Korea  
Tel: 82-2-3399-1586 Fax: 82-2-3399-1594 E-mail: kohms@syu.ac.kr

투고일: 2010년 3월 26일 1차수정: 2010년 7월 5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14일

장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독립적, 자주적으로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협조적이며 호의적으로 행동한다(Kang, 2001). 자존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습득되고 타인과의 접촉에 의한 경험과 지각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강화와 모방을 통하여 발달될 수 있다(Fitts, 1971). 따라서 청소년들은 중요한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정신적 발달을 성취하여 독립적이며 높은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Steinberg, 1990).

청소년의 자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 및 문화 등이 있으나 그 중 기본적인 지속적 영향을 주는 것은 구성원 상호 간의 결합능력이 강한 가정환경이며(Kim & Sim, 2001) 이곳에서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가정환경을 비롯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존감의 발달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의 응집이나 결속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Lee & Kang, 2008) 이때 가족응집성은 가족 간의 애정적인 유대정도와 한 개인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족응집성 정도는 자녀들의 심리적응 및 발달에 큰 영향이 있다(Olsen, Russell, & Sprenkle, 1983). 이를 지지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가족 응집성은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것과(Barber & Buehler, 1996), 가족응집성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Steinberg, 1990), 또한 청소년의 높은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Jeon & An, 2007)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응집성이 적절한 가족은 개인의 독립과 가족구성원 간의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달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나아가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Kim & Sim, 2001).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족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며(Lee & Kang, 2008) 또한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고(Kang, 2006; Kim, 1987), 가족응집성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나(Kim, Lee, & Kang,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그리고 청소년의 자존감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된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11개 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진행상 먼저 학교장 및 연구교사와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일차적 면담 허락을 구한 후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인이 함께 학교 방문하여 구체적인 연구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들의 허락하에 각 교실을 방문하고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후 동의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모수치의 수가 40개 전후인 것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크기가 추정모수치의 10배 이상(Kleinbaum, Kupper, & Muller, 1988) 이므로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 배포는 2007년 3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배포한 총 1,400부의 질문지 중 1,385부가 회수되어 99%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질문지 86부를 제외한 총 1,299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 연구 도구

#### 자존감

Coopersmith (1968)의 Self-Esteem Inventory 검사를 Kim (198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긍정 9문항, 부정 16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긍정문항은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 부정문항은 그렇다 0점, 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R 20으로 추정된 본 도구의 신뢰도는 0.77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Lee, Lee, Jung과 Park (1998)이 개발한 양육태도 문항 중 민주적 양육태도와 관련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어 있는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서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민주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Cronbach's  $\alpha$  = .85,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Cronbach's  $\alpha$  = .84로 나타났다.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은 Olson, Russell와 Sprenkle (1985)이 개발한 FACE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중 가족응집성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PSS 14.0을 이용하여 Pearson Correlation, t-test, F-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방법으로, 변수들의 영향력 검증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의 차이는 t-test, 또는 F-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하여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의 단계별 순서는 먼저 가족응집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 7개의 통제변수를 회귀한 후에 2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두 변수를 회귀시켰다. 이어서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단계에서 7개의 통제변수를 회귀한 후에 2단계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응집성의 세 변수를 회귀시켰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진단)을 검정한 결과 모두 회귀식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를 검토한 결과 VIF 값이 10보다 크지 않았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위한 검정결과 잔

차의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 이하의 범위에 있었고 편회귀 잔차도와 정규분포포를 확인한 결과 이상적인 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회귀식 가정을 충족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46.7% (606명), 여학생이 53.3% (692명)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0% (129명), 2학년이 49.7% (645명), 3학년이 40.3% (523명)이었다. 학교유형별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66.7% (866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33.3% (432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유무별로는 종교가 있음 57.7% (749명), 종교가 없음 42.3% (549명)이었고, 가족유형별로는 핵가족이 89.5% (1,162명), 대가족이 10.5% (136명)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2.1% (157명), 고등학교 졸업이 50.5% (655명), 대졸 이상이 37.4% (485명)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3.9% (180명), 고등학교 졸업이 60.7% (788명), 대졸 이상이 25.4% (329명)로 조사되었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았다(Table 2).

먼저 남녀학생의 비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t=3.586$ ,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N=1,299)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	606 (46.7)
	F	692 (53.3)
Grade	1	129 (10.0)
	2	645 (49.7)
	3	523 (40.3)
School type	Academic	866 (66.7)
	Vocational	432 (33.3)
Religion	Yes	749 (57.7)
	No	549 (42.3)
Family type	Nuclear family	1,162 (89.5)
	Extended family	136 (10.5)
	Level of father's education	
Level of father's education	Under junior high school	157 (12.1)
	High school	655 (50.5)
	University or above	485 (37.4)
Level of mother's education	Under junior high school	180 (13.9)
	High school	788 (60.7)
	University or above	329 (25.4)

**Table 2.** Parents Rearing Attitudes, Family Cohesions, Self Esteem' Means and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s

		Father's rearing attitude (p)	Mother's rearing attitude (p)	Family cohesions (p)	Self-esteem (p)
Male	M (SD)	14.663 (3.742)	15.443 (3.677)	24.128 (4.541)	12.846 (4.443)
Female	M (SD)	15.401 (3.663)	16.365 (3.187)	25.336 (4.567)	13.530 (4.498)
	t	3.586 (p<.001)	4.843 (p<.001)	4.769 (p<.001)	2.750 (.002)
Academic	M (SD)	15.492 (3.452)	16.214 (3.264)	25.070 (4.476)	13.388 (4.528)
Vocational	M (SD)	14.187 (4.064)	15.374 (3.747)	24.175 (4.768)	12.856 (4.379)
	t	-5.728 (p<.001)	-3.974 (p<.001)	-3.254 (p<.001)	-2.037 (.041)
Religion Yes	M (SD)	15.488 (3.574)	16.161 (3.383)	25.256 (4.600)	13.652 (4.387)
Religion No	M (SD)	14.468 (3.830)	15.624 (3.529)	24.111 (4.504)	12.608 (4.549)
	t	-4.877 (p<.001)	-2.754 (.001)	-4.484 (p<.001)	-4.146 (p<.001)
Nuclear family	M (SD)	14.944 (3.765)	15.894 (3.437)	24.739 (4.619)	13.207 (4.511)
Extended family	M (SD)	16.007 (3.135)	16.277 (3.594)	25.051 (4.374)	13.240 (4.266)
	t	-3.666 (p<.001)	-1.186 (.148)	-0.784 (.335)	-0.086 (.568)
Level of father's education					
Under junior high school <sup>a</sup>	M (SD)	14.082 (3.660)	14.829 (4.074)	23.000 (4.274)	11.949 (4.493)
High school <sup>b</sup>	M (SD)	14.888 (3.828)	16.032 (3.307)	24.753 (4.534)	13.118 (4.572)
University or above <sup>c</sup>	M (SD)	15.602 (3.497)	16.162 (3.369)	25.375 (4.631)	13.746 (4.274)
	F scheffee	11.499 (p<.001)	9.533 (p<.001)	16.320 (p<.001)	9.984 (p<.001)
		a<b<c	a<b,c	a<b<c	a<b<c
Level of mother's education					
Under junior high school <sup>a</sup>	M (SD)	13.806 (3.935)	14.950 (4.039)	23.348 (4.153)	11.845 (4.289)
High school <sup>b</sup>	M (SD)	15.149 (3.649)	16.144 (3.217)	24.917 (4.443)	13.422 (4.503)
University or above <sup>c</sup>	M (SD)	15.521 (3.619)	15.972 (3.570)	25.206 (5.021)	13.454 (4.422)
	F scheffee	13.304 (p<.001)	8.932 (p<.001)	10.723 (p<.001)	9.891 (p<.001)
		a<b<c	a<b,c	a<c	a,b<c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도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843, p<.001). 가족응집성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4.769, p<.001), 자존감도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750, p<.001).

학교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5.728,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974, p<.001). 가족응집성의 경우도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3.254, p<.001), 자존감도 동일하여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037, p<.001).

종교가 있는 경우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보고자 시도된 분석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 비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4.877,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도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무종교 청소년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2.754, p=.001). 가족응집성의 경우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무종교 청소년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4.484, p<.001), 자존감도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무종교 청소년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4.146, p<.001).

가족구성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조사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만 확대가족학생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3.666, p<.001).

아버지의 교육수준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대학 이상의 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중학교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F=11.499, p<.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경우 중학교 이하의 졸업자에 비하여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졸업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533, p<.001). 가족응집성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그리고 중학교 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6.320, p<.001). 자존감의 경우도 가족응집성의 경우와 같이 대학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그리고 중학교 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9.984, p<.001).

어머니의 교육수준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는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 대학졸업 이상, 고등학교졸업, 그리고 중학교 이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F=13.304, p<.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Parents's Rearing Attitude, Family Cohesions, Self Esteem

Variable	Father's rearing attitude ( <i>p</i> )	Mother's rearing attitude ( <i>p</i> )	Family cohesion ( <i>p</i> )	Self esteem ( <i>p</i> )
Father's rearing attitude	-	-	-	-
Mother's rearing attitude	.582 (.042)	-	-	-
Family cohesion	.441 (.037)	.444 (.017)	-	-
Self esteem	.318 (.036)	.344 (.029)	.384 (.025)	-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중학교 이하의 졸업자에 비하여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졸업자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F=8.932, p<.001$ ). 가족응집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의 군이 중학교 이하의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10.723, p<.001$ ).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경우 대졸 이상의 군이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이하의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F=9.891, p<.001$ ).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응집성, 자존감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상관관계는  $r=.582 (p=.042)$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족응집성의 상관관계는  $r=.441 (p=.037)$ ,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은  $r=.318 (p=.036)$ 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가족응집성 간의 상관관계는  $r=.444 (p=.017)$ 로 유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는  $r=.344 (p=.029)$ , 가족응집성과 자존감의 상관관계는  $r=.384 (p=.025)$ 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았다.

먼저 가족응집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인 <Expression 1>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beta=.259, p=.003$ ), 어머니의 양육태도( $\beta=.275, p=.027$ )가 모두 가족응집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7개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 $\beta=-.074, p=.005$ )은 가족응집성에 부정적 영향을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응집성이 더 낮음을 보였고, 종교( $\beta=.066, p=.006$ )가 있는 경우가 가족응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응집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종교, 성별 등 모두는 가족 응집성의 26.0%를 설명하고 있었다.

**Table 4.** Influence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on the Family Cohesions and Self Esteem

Category	Expression 1	Expression 2
	Dependent variable Family cohesions $\beta (p)$	Dependent variable Self Esteem $\beta (p)$
Control variable		
Gender*	-0.074 (.005)	-0.008 (.186)
Grade	-0.036 (.231)	0.033 (.330)
Type of school <sup>†</sup>	0.021 (.130)	0.050 (.033)
Religion <sup>‡</sup>	0.066 (.006)	0.053 (.027)
Type of family <sup>§</sup>	-0.016 (.054)	-0.019 (.255)
Level of father's education <sup>  </sup>	0.048 (.074)	0.057 (.062)
Level of mother's education <sup>¶</sup>	0.003 (.157)	-0.030 (.146)
Theoretical variable		
Father's rearing attitude	0.259 (.003)	0.099 (.006)
Mother's rearing attitude	0.275 (.007)	0.169 (.006)
Family cohesions		0.257 (.004)
R <sup>2</sup>	.260	.199
R <sup>2</sup> Change	.211	.171
F	20.712	7.844
p	.005	.004

\*Gender, M=1 F=0; <sup>†</sup>Type of school, academic=1, vocational=0; <sup>‡</sup>religion, have=1 none=0; <sup>§</sup>Type of family, nuclear =0, extended=1; <sup>||</sup>Level of father's education, university or above=1, under graduate high school=0; <sup>¶</sup>Mother's rearing attitude, university or above=1, under graduate high school=0.

자존감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Expression 2>를 보면, 가족응집성( $\beta=.257, p=.004$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beta=.169, p=.006$ ), 아버지의 양육태도( $\beta=.099, p=.006$ ), 종교( $\beta=.053, p=.027$ ), 학교유형( $\beta=.050, p=.033$ )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19.9%를 설명하였다.

**논 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 확립해야 하는 바람직한 자존감을 개발할 환경적, 정신적인 여유가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성취해야 하는 건강한 자존감 개발과 현실 적응 사이에서 긴장과 혼돈을 겪고 가족과 마찰을 일으켜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상 등에 왜곡된 지각을 초래할 수가 있다. 그 결과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높아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성숙한 성인으로 발달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나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본 연구는 청소년 지각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응집성을 파악하고 이 변수들이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 변수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는데 이 중 의미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하여 자존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이는 Lee (2001), Lee와 Mun (2002)의 남녀고등학생의 자존감 비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남녀학생의 자존감의 차이에 대한 서로 상반된 결과가 어떤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추후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지각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여 민주적 양육태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민주적이고 긍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들(Block, 1983; Fristod & Karpowitz, 1988; Lee & Kang, 2008)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하여 가족응집성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한 것은 Kang (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관해서는 더 많은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학교유형에 따른 변수별 차이에서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에 비하여 5개의 연구변수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게 조사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상 대학진학에 대한 지나친 열기로 인문계고등학교는 점점 팽창해가는 반면 본인의 진로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자존감의 경우는 다른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었는데 충청북도 소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존감을 비교 연구한 Han (2003)은 학교설립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에 따른 차이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추후 연구는 향후 학생지도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존감 및 가족응집성이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 중 가족응집성의 경우 Kim, Lee와 Kang (2007)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졸업 이상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과 같은 결과였다. 그러나 Jeon과 An (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른 가족응집성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에 따른 가족응집성을 심층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족응집성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일반적 특성 변수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는 Kang (2006), Kim (2005)의 결과와 동일하여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Lee와 Kang (2008)은 가족응집성을 낮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가족응집성은 청소년의 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본 것을 고려할 때 부모 중 어머니 양육태도의 상대적 영향력이 아버지보다 높아 가족응집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지지받는 Bang (2000)의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로 한 번에 질문하거나(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Park,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질문한 것(Lee, 2001)들이 대부분이어서 본 결과를 논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그 역할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향후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고자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 고유의 특성에 따라 분리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해보였다.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본 결과, 가족응집성이 가장 크고( $\beta=.257$ ) 어머니의 양육태도( $\beta=.169$ ), 아버지의 양육태도( $\beta=.099$ )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Kim과 Lee (200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에 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의 영향력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 가족응집성이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응집성이 클수록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Jeon과 An (2007)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자존감은 개인의 권리인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Lee & Mun, 2002) 음주 및 약물 중독 등의 비행 요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Lee, 2006) 가족구성원 간에 응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Jeon과 An (2007)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중 가족응집성이 더 영향이 있는 변수임이 확인된 것은 위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가족은 인간이 최초로 접할 수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 한 사회를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과거와 달리 대부분

의 가족 기능이 사회로 많이 이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역할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고유의 기능으로 남아 있음을(Feldman & Alto, 1996) 고려할 때 본 연구로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태도를 지닐수록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이 높았는데 이것은 Kim (2005)의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지닐수록 자녀의 문제행동과는 상관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증진시키므로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건강 증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민주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과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11개 고등학교 1,299명에게 조사한 결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모두 가족응집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7개의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은 가족응집성에 부정적 영향을 보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족응집성이 더 낮음을 보였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가족응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응집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종교, 성별 등 모두는 가족응집성의 26.0%를 설명하고 있었다.

자존감에 대한 영향을 보면, 가족응집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종교, 학교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두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19.9%를 설명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족응집성에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자존감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가족응집성의 중요성이 본 연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

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인문계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그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재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결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고등학생들을 조사한 것으로서 본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할 수 없으므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반복 연구 시 부모와 자녀인 청소년을 동시에 짝 표본으로 표집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응집성이 자녀들의 자존감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Bang, H. J. (2000). Developmental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n societ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6(3), 41-65.

Bang, H. J., & Cho, A. M. (2003).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adolescents' internet game-related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6, 1-22.

Barber, B., & Buehler, C. (1996). Family cohesion and enmeshment: Different constructs, different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33-441.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Personality and Behavior Disorder*, 2, 18-24.

Feldman, B., & Alto, P. (1996). Identity, sexuality and the self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41, 491-507.

Fitts, W. H. (1971). Self-concept and self actualization. *Research Monograph*, 3, 3.

Fristod, M. A., & Karpowitz,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 behavior inventory-modified form. *Psychological Report*, 62, 665-666.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S.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 373-386.

Han, S. H. (2003). *A study on the value-orientation of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University, Chungju.

Jeon, Y. J., & An, K. S. (2007).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self-esteem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Woman Policy*, 7, 109-137.

Jung, K. W.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high school students: With focus on sex differ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165-190.

Kang, H. J.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doles-*

- 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ang, J.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self-esteem, decision making styles, stress-coping strategong, and mental health by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A. K. (2003).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s, social supports, locus of control orientation on early adolescents'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0*, 351-372.
- Kim, K. Y. (1987). *The relation of parental evaluation of children self-esteem and child-rearing attitudes to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im, T. H., & Lee, Y. J. (2005).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function on self-esteem in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0*, 173-193.
- Kim, J. Y., Lee, H. J., & Kang, M. J.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family-cohesion and self-control ability on the adolescent's school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73-201.
- Kim, O. N. (2005). Parents' marital conflict, parenting attitude, and problem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 83-104.
- Kim, S. Y., & Sim, M. B.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psychological preference and family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8*(4), 71-84.
- Kleinbaum, D. G., Kupper, L. L., & Muller, K. E. (1988). *Applied regression analysis and other multivariate methods*. Boston, MA: PWS-KENT publishing Company.
- Lee, H. J., & Kang, M. H. (2008). The validation of the PQA and the relationship with parenting style and family function. *Studies on Korean Youth, 19*(3), 5-31.
- Lee, J. H. (2006). *The analytic study on the casual relationship of the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stress of th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 Lee, M. J. (2001).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ttitude of bringing up, school condition and adolescent, depression-medium change factor: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S., & Mun, Y.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recognition of righ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 65-89.
- Lee, S. H., Lee, S. Y., Jung, H. H., & Park, H. S. (1998). Parents-children's relation and adolescent's psycho-social adaptation. *Samsung Social-Psychological Health Research Center Report, 97*(7), 13-20.
- Olse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ark, J. H. (2002). *The influence of parents' home-education direction and rearing behavior upon psychosocial maturity of their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Steinberg, L. (1990).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family relationships. In S. Feldman, & G.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pp. 112-138).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